

인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은 잠시 교육체계를 떠나 있더라도 여전히 성장과 꿈을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들의 성장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일은 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발전에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특성화지원 기능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브리프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2025)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CONTENTS

- I.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과 정책적 필요성
- II. 인천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특성 분석
- III.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체계와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 IV.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I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정책적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으로 인해 교육과 복지, 사회적 자원의 지원에서 쉽게 소외된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 단절을 넘어 진로 탐색 기회 부족, 정서적 불안정, 가족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미래 인적자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청소년의 삶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학업·진로·자립·특성화지원 기능의 다섯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초기 위기 개입부터 학업 복귀, 직업 탐색, 자립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민주시민 역량 강화,

연령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브리프는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천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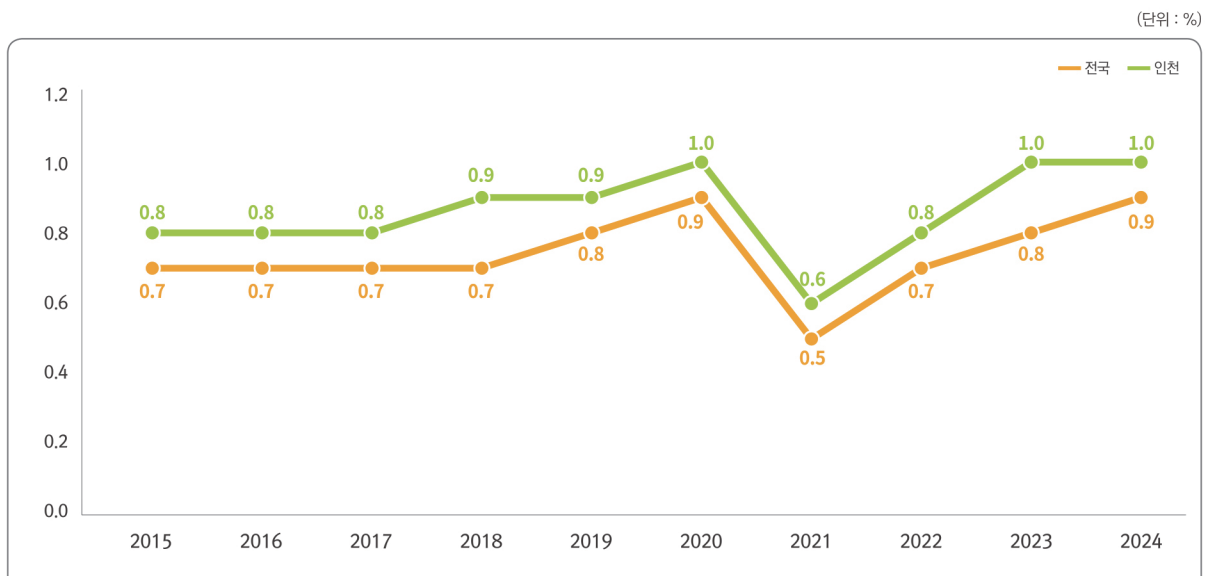
1 연도별 학업 중단 현황 및 분석

인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양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육 통계에서 제공하는 학업 중단자 자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보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청소년의 복합적인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 질적 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교육통계자료를 토대로 인천시의 학업 중단율과 학업 중단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인천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인천시의 학업 중단율은 전국 평균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부분 긍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양자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업 중단율이 0.5%까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등교는 중단되었으나 학적은 유지되었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2022년에 대면수업이 재개되자 학업 중단율은 다시 0.7~0.9% 수준으로 상승했고, 학업 중단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기간에 일시적으로 가려졌던 청소년의 어려움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누적된 학습 격차,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또래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학업 중단 문제는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 보아야 한다. 향후 정책은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림 1]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학업 중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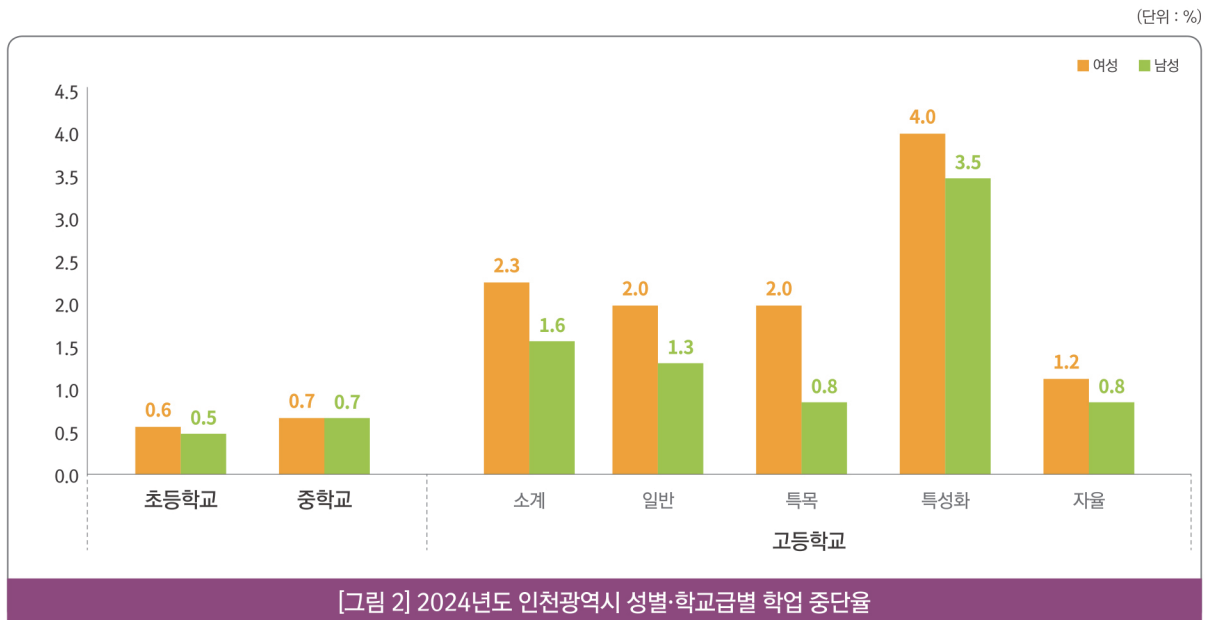
2 성별 및 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 및 분석

2024년 인천시의 성별 및 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녀 간 학업 중단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0.6%, 남학생은 0.5%로 유사하며, 중학교에서도 남녀 모두 0.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 초기에는 성별에 따른 학업 지속의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가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전체 학업 중단율은 1.9%이며, 여학생은 2.3%로 남학생 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기 취업, 가사와 돌봄 책임,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여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의 경우 여학생은 2.0%, 남학생은 1.3%를 기록하였다. 특성화고에서는 여학생이 4.0%, 남학생이 3.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단율이 높으며, 특목고와 자율고에서도 여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특히 특성화고 여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아, 직업교육 과정에서 여학생이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특성과 학교 유형의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은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성별 요인과 학교의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불리한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III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체계와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1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에 따른 실행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인권 존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자립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법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진로 탐색, 직업 훈련, 학습 기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차별과 소외 없이 공적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국가적 방향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지정·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8개 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자체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인천시와 자치구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센터 설계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상담, 교육, 진로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체계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 계획의 전략과 과제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다양한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는 단순히 교육의 단절에 그치지 않고 진로 탐색의 기회 부족, 정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층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첫째 전략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자치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진로, 자립, 문화·여가, 건강검진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초·중등 단계의 의무교육 학습지원을 통해 학력 취득을 돕고, 검정고시반과 1:1 학습멘토링을 제공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인권과 근로교육, 도박·약물·자살예방 등 기초소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요리·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기술과 금융 교육을 포함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다.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고, 직업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진로 탐색을 지원하였다.

둘째 전략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종종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제약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검정고시장 등에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포하였다. 또한 학업과 자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청소년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성취감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였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지원 현장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전략은 지원시스템의 내실화이다. 인천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통해 상담, 보호,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였다. 특히 청소년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각 자치구가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넷째 전략은 발굴·연계 체계의 강화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학업중단 정보연계를 고도화하여 상담, 교육, 보호,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신속한 연계를 실현하였다. 온라인 아웃리치(청소년 전화 1388)와 오프라인 거리 상담을 병행하여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쉼터와 보호시설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즉시 보호하였다. 중·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긴급구조와 의료지원, 자살위험 관리 등 집중적인 개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발굴 및 연계 전략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높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전략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표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1.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시·구) 1-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1-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심 제고	
	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 2-2. 우수 학교 밖 청소년 시장 표창 수여 2-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시스템 운영	
	3-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체계 운영 3-2. 자치구 지원시스템 구축 유도 및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강화	
	4-1. (시·교육청) 온라인 정보연계 내실화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4-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쉼터 연계 지원 4-3. 중·고위험군 청소년 방문상담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 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25).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분석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학업·진로·자립 기능의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위기 안정에서 사회 진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먼저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초기 면접과 심리검사를 통한 개별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속려제, 보호자 상담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가족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례관리와 보호자 참여가 부족하고, 전문 상담 인력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인력 확충,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상담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지원, 스마트교실, 멘토링 등으로 학력 회복과 학습 지속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정고시의 단계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검정고시 이후의 학업·진로 연계가 미흡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질적 편차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학업연계 강화, 온라인 콘텐츠 표준화, 멘토단 활동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단기 기술 습득 중심의 프로그램 한계와 산업 수요와의 불일치, 취업 이후 사후관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수요 기반의 직업훈련 개발, 체험-훈련-취업의 통합 설계, 산업체 협력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

넷째,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자아성장캠프, 자치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육, 취업, 의료비 직접 지원을 통해 안전망 공백을 줄여왔다. 그러나 프로그램 간 연계 부족과 맞춤형 자립경로 미비가 한계로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자립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통합 운영, 민간 자원 연계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정신건강 클리닉, 종사자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홍보와 교육의 단발성 운영, 민관 협력의 편중, 재정 불안정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홍보 체계 확립, 종사자 전문성 강화, 민관 협력 확대와 재정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학업·진로·자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단계적 지원 구조를 더욱 정교화하고 보완 기능을 강화한다면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진입을 위한 종합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한계 및 개선 방향

기능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면접과 심리검사를 통해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학업중단속려제로 학업 복귀 지원 보호자 상담으로 가족 소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추적 관리 부족 보호자 상담 참여율 낮음 전문 상담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관리 전담 인력 확충 가족 참여 유도 프로그램 개발 상담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학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교실과 자습 공간 제공으로 학습 환경 안정화 검정고시 원스톱 지원으로 학력 회복 촉진 동기강화와 멘토링으로 학습 지속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고시 이후 학업·진로 연계 부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질 편차 존재 멘토단 활동 지역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 학업 및 진로 연계 강화 온라인 콘텐츠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멘토단 균형적 배치 확대
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체험과 자격증 취득으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직업훈련과 비용 지원으로 취업 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체험 위주로 지속성 부족 산업 수요와 훈련 내용 불일치 취업 이후 사후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기반 직업훈련 개발 진로-훈련-취업-사후 관리 통합 설계 산업체 협력 네트워크 확대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성장캠프와 자치활동으로 자기주도성·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취업·의료비 직접 지원으로 안전망 공백 최소화 건강·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간 연계 부족 개별 맞춤형 자립경로 미비 참여율 저조와 지속성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맞춤형 자립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간 통합 운영 강화 접근성 개선 및 재정 다변화
특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강화로 청소년 발굴 및 인식 개선 종사자 교육과 처우개선비로 서비스 품질 향상 민관 협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의 단발성 운영 종사자 교육의 체계화 부족 민관 협력 편중 및 재정 안정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홍보 체계 확립 종사자 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및 재정 안정화 전략 마련

IV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1 상담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업 복귀와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담은 단기 위기 대응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의 장기적 성장 과정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전인적 발달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미술치료·음악치료·집단심리극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정규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회복탄력성 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 안정,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효능감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연령별 상담 표준을 마련하여 저연령 청소년(9~11세)에게는 정서 안정과 생활습관 형성을, 초기 청소년(12~14세)에게는 또래 관계 및 사회성 강화를, 중기 청소년(15~18세)에게는 학업 및 진로 상담을,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는 자립 및 사회진입 상담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상담을 정례화하여 부모 교육과 가족 치료를 병행하고, 상담 기록과 사례 관리를 학업·진로·자립 서비스와 자동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담이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을 넘어 성장 촉진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2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그동안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학력 회복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할 경우,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학력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을 결합하여 학업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검정고시와 입시 과정에 노동권, 금융,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론 활동, 모의의회, 지역 토론캠프 등을 수업 과정에 도입해 청소년이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주 및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령별 학습 과정을 세분화하여 저연령(9~11세)에게는 기초학습을, 초기·중기 청소년(12~18세)에게는 검정고시와 입시 준비를,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는 대학 및 직업 연계 학습을 제공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

3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기 기술 습득 중심의 진로지원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장기적 진로 설계와 지속가능한 직업 역량 개발을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사회적 기업 탐방, 정책 제안 활동 등 사회참여형 진로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직업을 공동체와 연결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는 노동법, 금융, 주거 교육을 강화하여 성인기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를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학,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현장실습-인턴십-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로 경로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학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권리 기반의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생활기술 중심의 단기 지원에 그쳐 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실천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별 자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저연령(9~11세)에는 생활습관 형성을, 초기 청소년(12~14세)에는 사회적 강화를, 중기 청소년(15~18세)에는 봉사활동과 리더십 훈련을, 후기 청소년(19~24세)에는 주거·노동·건강·법률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립의 핵심 목표를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으로 설정하고, 실습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권리를 실제 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치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시민적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역할을 자각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특성화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상담, 학업, 진로, 자립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특성화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권리옹호 캠페인과 지역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교육과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을 갖출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표 3〉 인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추진전략

기능	핵심목표	추진전략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안정적 개입 단기 위기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장 촉진 중심의 상담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인적 발달형 상담체계 구축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미술·음악·심리극) 정규 운영 회복탄력성 훈련으로 정서 안정,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효능감 향상 연령별 상담 표준 마련(저연령: 정서 안정, 초기: 사회성 강화, 중기: 학업·진로, 후기: 자립·사회 진입) 가족 상담 정례화 및 부모 교육·치료 병행 상담 기록과 사례 관리를 학업·진로·자립 서비스와 자동 연계
학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회복과 민주시민 역량의 동시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 결합으로 학업지원 체계 재편 검정고시·입시 과정에 노동권·금융·소비자 교육 포함 토론활동, 모의의회, 토론캠프 운영으로 비판적 사고력 함양 이주·다문화 청소년 대상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도화 연령별 학습(저연령: 기초학습, 초기·중기: 검정고시·입시 준비, 후기: 대학·직업 연계 학습)
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장기적 진로 설계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기술 습득 중심에서 사회참여형 진로교육으로 전환 지역사회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탐방, 정책 제안 활동 추진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법·금융·주거 교육 강화 창업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연계로 다양한 진로 선택 보장 대학·기업·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현장실습 → 인턴십 → 취업의 체계적 경로 마련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 기반의 자립 역량 강화 청소년의 독립적 사회 적응 및 시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별 자립과정 운영(저연령: 생활습관 형성, 초기: 사회성 강화, 중기: 봉사·리더십, 후기: 주거·노동·건강·법률 역량 강화) 자립 목표를 주거권·노동권·건강권으로 설정 실습형 교육을 통해 권리 실천 유도 자치활동+문화예술 프로그램 결합으로 시민적 소속감과 책임감 제고
특성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학업·진로·자립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클리닉 운영으로 건강관리 강화 권리옹호 캠페인 및 지역 아웃리치 활동 확대 종사자 정기 교육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근무 안정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통합 관리 및 지속적 개선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80) 인천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와 성장
- IFWF Brief(No.79)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IFWF Brief(No.78)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향
- IFWF Brief(No.77) 인천광역시 신중년(50+)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 IFWF Brief(No.76)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천의 미래를 위한 약속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